

하마스, 반유대주의의 화신 : 그 이념적 기원과 정체성을 중심으로

김 덕 일 (독립연구자)
(drkedy@naver.com)



국문요약

이 연구는 하마스가 내세우는 반유대주의의 기원과 하마스의 정체성을 살펴봄으로써 하마스의 무장 투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의 본질을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반유대주의, 이슬람주의, 하마스의 모체 이집트 무슬림형제단에 관한 주요 연구성과를 검토해 원래 이슬람 전통에서 반유대주의는 존재하지 않았고, 이슬람 세계에서 반유대주의는 유럽의 반유대주의와 20세기 출현한 이슬람주의가 융합한 결과물이었음을 밝힌다. 그리고 하마스의 이념적 정체성을 담은 1988년 규약 및 2017년 일반원칙과 정책을 분석해 하마스가 이슬람주의식 반유대주의를 신봉하는 테러 단체이며, 하마스가 이스라엘과 벌이는 전쟁은 단순한 영토 분쟁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전 세계 유대인이 멸절되어야만 끝나는 종교 전쟁임을 주장한다. 이 연구는 반유대주의를 주제로 하마스의 이념적 기원과 정체성을 국내 최초로 고찰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주제어 : 반유대주의, 이슬람주의, 팔레스타인, 하마스, 무슬림형제단, 이스라엘,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I. 들어가며

최후의 심판은 오지 않으리라. 무슬림이 유대인에 맞서 싸우고 죽일 때까지, 유대인이 바위와 나무 뒤에 숨고 바위와 나무가 “오, 그대 무슬림이여, 오, 그대 알라의 종이여, 여기 내 뒤에 숨은 자는 유대인이니 와서 그를 죽이시오”라고 말할 때까지.

- 1988년 하마스 규약 7조(Al-Nawawi: Sahih Muslim, Hadith Nr. 2922, 압드엘-사마드 2016, 281-282에서 재인용)

사람들이 시온주의자를 비난할 때, 그들은 유대인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반유대주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 마틴 루서 킹 주니어(Kramer 2017, 260)

2023년 10월 7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Gaza Strip)에서 활동하는 이슬람저항운동(Harakat al-Muqawama al-Islamiya: Hamas, 하마스)이 이스라엘을 기습해 노약자, 여성, 영유아, 외국인 노동자 등을 살해하고 납치하면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발발했다. 하마스에 희생당한 이들을 추모하는 목소리도 잠시, 반(反)이스라엘·친(親)팔레스타인 시위가 전 세계를 뒤덮었다. 이슬람 세계에서는 “알라후 아크바르(신은 위대하다)”를 시작으로 “카이바르(Khaybar),¹⁾ 카이바르, 오, 유대인아, 무함마드의 군대가 돌아온다”가 울려 퍼졌고, 서방 세계에서도 “Gas the Jews(유대인을 독가스로 죽여라)”와 “From the river to the sea(강에서 바다까지)”²⁾라는 구호가 등장했다. 홀로코스트 이후 처음으로 베를린의 유대인 집 문에는 다윗의 별(Magen David)³⁾이 표시되었고, 미국 대학 캠퍼스에서 유대인 학생은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대의 표적이 되었으며, 하마스가 납치한 인질들 사진을 실은 포스터는 갈가리 찢겼다. 그동안 가자지구를 차별하고 봉쇄해온 이스라엘을 비판하고 더 이상의 민간인 피해를 막기 위해 이스라엘에 휴전을 촉구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문제는 이런 반(反)이스라엘·친(親)팔레스타인 시위에 등장한 구호가 하마스가 표방하는 반유대주의(Anti-Semitism)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하마스를 테러 단체로 지칭한 언론인이나 학자는 이스라엘과

1) 카이바르는 현재 사우디아라비아 메디나(Medina) 인근 지역으로 서기 628년 이슬람의 예언자 무함마드(Muhammad)가 유대인 부족을 학살한 곳이다.
2) 강은 요르단강, 바다는 지중해를 가리킨다. 이스라엘 국가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문구다(Bundesamt für Verfassungsschutz 2019, 20).
3) 유대인을 상징하는 육각 모양의 별이다.

제국주의를 옹호하는 인물로 낙인이 찍힌다. 이스라엘과 유대인은 가해자이며 악(惡), 하마스와 팔레스타인 아랍인은 피해자이며 선(善)이라는 이분법만이 존재한다. 반유대주의의 망령은 이미 전 세계적 현상이다. 유럽과 미국 학계에서는 반유대주의를 주제로 하마스를 비롯해 이슬람주의 단체에 관한 많은 연구가 있었다(Kramer 1994; Küntzel 2005; Krämer 2006; Hassan 2009; Herf 2009; Freitag et al. 2011; 티비 2013; Herf 2014; Küntzel 2014; Spoerl 2014; Tibi 2015; 압드엘-사마드 2016; 맥세인 2016; Patterson 2016; Bundesamt für Verfassungsschutz 2019; Firestone 2020; Spoerl 2020; Bartal 2021). 그러나 역사적으로 유대인과 접점이 없었던 국내에서 반유대주의는 상당히 낮은 주제이며, 반유대주의와 하마스를 함께 다룬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하마스는 제1차 인티파다(Intifada)⁴⁾ 이후 출현한 팔레스타인의 이슬람주의 무장 정파로 소개되어왔고, 하마스의 조직과 정책 노선, 이스라엘 및 팔레스타인 내 경쟁자 파타흐(Fatah)⁵⁾와 관계 변화, 하마스가 참여한 선거 결과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유왕중 2006; 인남식 2006; 장병옥 2009; 최영철 2009). 그러나 이런 연구는 하마스가 연루된 사건이 발생한 후 판세를 설명하고 후반부 향후 사태를 전망하는 현상 분석으로 하마스-이스라엘 관계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하마스의 무장 투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려면, 하마스의 정체성과 핵심 이념을 살펴보아야 한다. 하마스의 정체성과 이념에 관해 1988년 하마스 규약⁶⁾을 토대로 홍미정은 하마스 무장 투쟁의 민족주의적 성격을 강조했고(홍미정 2001), 최영철은 이집트 무슬림형제단 팔레스타인 지부로 탄생한 하마스의 이슬람주의와 그 목표를 다루었다(최영철 2002), 그러나 두 연구 모두 1988년 하마스 규약에서 가장 중요한 반유대주의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이 연구는 국내 최초로 하마스의 핵심 이념 반유대주의와 그 기원을 역사적으로 고찰해 하마스의 무장 투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의 본질을 규명하고자 한다. 서방 학계와 언론이 편향되어 있다는 선입견을 버리고 반유대주의, 이슬람주의, 하마스에 관한 세계적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반유대주의 개념을 정리하고, 예언자 무함마드와 유대인 사이의 충돌과 이슬람 세계에서 유대인의 지위를 검토해 오늘날 이슬람 세계의 반유대주의가 종교 이슬람의 태생적 특징인지 아닌지 고민해보며, 유럽의 반유대주의가 이슬람과 융합하고 하마스의 뿌리 무슬림형제단과 나치의 협력을 거쳐 이슬람주의식 반유대주의가

4) 1987년 일어난 이스라엘에 맞선 팔레스타인 아랍인의 민중 봉기다.

5) 팔레스타인해방기구(Palestine Liberation Organization)의 최대 정파로서 세속주의를 추구하고, 1993년 오슬로 협정 이후 이스라엘과 평화 및 유대인과 아랍인 국가가 각각 공존하는 '두 국가 해법(Two-state solution)'을 지지한다.

6) 하마스 헌장 또는 하마스 규약 등으로 불리나 이 연구에서는 하마스 규약으로 통일한다.

탄생하는 과정을 살펴본 후 하마스가 1988년 제정한 규약뿐만 아니라 2017년 새롭게 발표한 일반원칙과 정책의 주요 조항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하마스가 이슬람주의식 반유대주의를 신봉하는 테러 단체이며, 하마스의 무장 투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의 본질은 일시적 영토 분쟁이 아닌 영구적 종교 전쟁임을 밝힐 것이다.

II. 반유대주의와 이슬람 세계

하마스는 이집트 무슬림형제단(Muslim Brotherhood)의 팔레스타인 지부로 1987년 탄생했으며, 이슬람주의에 기반한 반유대주의를 그 이념으로 하는 테러 단체다.⁷⁾ 그러나 하마스는 1987년에 갑자기 생긴 단체가 아니다. 하마스를 이해하려면, 우선 하마스의 모체(母體) 이집트 무슬림형제단과 그 핵심 이념 이슬람주의와 이슬람주의가 만들어낸 반유대주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이슬람주의(Islamism)는 무엇인가? 현대 이슬람주의는 1928년 이집트에서 무슬림형제단을 결성한 하산 알반나(Hassan al-Banna)가 정립했다. 이슬람주의는 정치 이념으로서 서양에서 유입된 사상과 문화가 이슬람 공동체를 타락시켰으므로 서기 7세기 무함마드와 무함마드가 죽은 후 정통 칼리프(caliph)⁸⁾가 통치하던 순수 이슬람으로 돌아갈 것을 역설하며, 이슬람법 샤리아(Sharia)⁹⁾가 지배하는 정교일치 이슬람 국가(Islamic state), 더 나아가 전 세계에 이슬람 질서 수립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이슬람주의는 신(神)의 주권만을 인정하고 이슬람 경전 코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며, 다당제를 부정하고 샤리아를 절대불변의 진리로 국가와 사회에 적용하려 한다는 점에서 보편적 인권 및 민주주의와 맞지 않으며 전체주의적 성격을 띤다.¹⁰⁾

그렇다면 반유대주의(Anti-Semitism)는 무엇인가? 반유대주의는 “정치적, 사회적, 인종

7) 테러리즘은 “국가가 아닌 단체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민간인에 위해를 가해 공포를 일으키는 행위”이며(장지향 2023, 252), “‘점령당한 쪽’이 ‘점령한 쪽’을 대상으로 벌이는 공격적이고 어느 정도 정치적 대의를 지닌다고 하더라도 테러 행위의 진위는 정치적 목표와 원인이 아닌 폭력 행위 자체로 판단해야 한다.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장지향 2023, 256). 하마스는 이스라엘 민간인을 상대로 자살폭탄 테러와 로켓 공격을 해왔고, 2023년 10월 7일 이스라엘을 침공해 민간인을 대량 살상했다는 점에서 테러 단체가 맞다.

8) 칼리프는 수니파 이슬람 세계 지도자이며, 정통 칼리프 시대는 서기 632~661년에 해당한다.

9) 이슬람 경전 코란(Quran), 예언자 무함마드의 언행을 기록한 하디스(Hadith)를 근간으로 이슬람 공동체가 합의한 이즈마(ijma)와 이슬람 법학자가 추론한 키야스(qiyas)로 구성된다.

10) 유럽인권재판소는 샤리아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과 양립할 수 없다”고 밝혔다(Bundesamt für Verfassungsschutz 2019, 24). 이슬람주의의 비(非)민주적·전체주의적 특성에 관해서는(티비 2013, 158-209, 302-331)를 볼 것.

차별적 혹은 종교적 이유로” 이스라엘 국가 국민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유대인과 유대인 공동체를 겨냥한 적대적 발언이나 행동이다(Bundesamt für Verfassungsschutz 2019, 8). 반유대주의는 단순한 유대인 혐오와 선입견이 아니라 유대인을 절멸해야 할 '악(惡)'으로 보기 때문에 유대인 학살을 지지한다(티비 2013, 102). 반유대주의가 시작된 곳은 유럽·기독교 세계였다. 전통적으로 기독교도 유럽인은 유대인을 예수의 죽음에 집단적 책임이 있고, 고리대금업에 종사하면서 전염병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피에 굶주린 민족¹¹⁾이라고 생각했다. 근대 반유대주의는 1850년대 독일에서 정치 운동으로 출발했고(맥세인 2016, 259), 제정 러시아에서 유대인 박해 포그롬(Pogrom), 1894년 프랑스에서 드레퓌스 사건(Dreyfus Affair)¹²⁾으로 나타났다. 결정적으로 『시온 장로 의정서(The Protocols of the Elders of Zion)』가 1903년 제정 러시아에서 출간되었고, 1917년 10월 혁명 이후 전 유럽으로 퍼져 1920년 영어와 독일어 번역본이 나왔다(Krämer 2006, 256-257). 이 책은 19세기 유대인 지도자들이 비밀회의에서 세계 정복을 획책했다는 유대인 음모론을 퍼뜨렸고, 반유대주의를 정당화하는 문서로 악용되었다. 그러나 『시온 장로 의정서』는 차르(Tsar)의 비밀경찰이 날조한 것으로 보이는 위서(僞書)다(Bundesamt für Verfassungsschutz 2019, 15).

역설적으로 유럽을 휩쓴 반유대주의는 유럽에 살던 유대인이 유대인 국가 건설을 위한 시온주의(Zionism)를 자극했다. 따라서 1948년 이스라엘 건국 이전 시온주의는 “모든 유대인의 독립된 민족국가를 세우려는 정치적 노력”이었고, 1948년 이스라엘 건국 이후 시온주의는 “그 국가를 보전하고 발전시키려는 모든 노력”이다. 반대로 반시온주의(Anti-Zionism)는 “이스라엘 국가의 존재를 거부하거나 위협하는 모든 발언이나 행동”이다(Bundesamt für Verfassungsschutz 2019, 5). 반유대주의와 반시온주의는 사전적으로 엄연히 다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반시온주의는 팔레스타인을 공격하는 이스라엘을 세계 평화를 해치는 악으로 간주해 “이스라엘 국가를 완전히 파괴하는 것”이 목표다(Bundesamt für Verfassungsschutz 2019, 10). 겉으로는 이스라엘만을 노리는 것 같지만, 이스라엘을 없애는 것은 이스라엘의 유대인도 없애는 것이므로 반시온주의에는 반유대주의를 감추려는 의도가 있다(맥세인 2016, 122). 따라서 미국 민권운동 지도자 마틴 루서 킹 주니어(Martin Luther King Jr.) 목사는 “사람들이 시온주의자를 비난할 때, 그들은 유대인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반유대주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라는 말을 남겼다

11)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탈출한 사건을 기리는 유월절(Passover)에 유대인이 기독교도 어린이의 피로 빵을 굽는다는 이른바 '피의 비방(Blood libel)'이다(Bundesamt für Verfassungsschutz 2019, 22).

12) 1894년, 프랑스 육군 유대계 알프레드 드레퓌스(Alfred Dreyfus) 대위가 무죄임에도 반역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이다.

(Kramer 2017, 260). 과거 반유대주의가 이스라엘 건국으로 귀결되었듯이 오늘날 반유대주의와 반시온주의는 이스라엘을 더욱 강경하게 만들 뿐 평화와 공존에 방해가 된다(맥세인 2016, 223-234).

그렇다면 이슬람 세계에서 반유대주의는 없었는가? 이슬람에서 예언자 무함마드는 알라(Allah)가 보낸 마지막 사도이며, 무함마드가 신의 계시를 받아 완성한 종교가 이슬람이다.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은 같은 시조 아브라함에게서 나왔고, 이슬람은 유대교도와 기독교도를 무함마드가 오기 전에 계시받은 ‘책의 사람들(People of the Book)’로 불렀다. 이슬람 세력에 정복당한 책의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 선택지가 있었다. 원래 신앙을 버리고 이슬람으로 개종하거나, 원래 신앙을 지키다 순교하거나, 이슬람 정치 체제에 복종하고 보호를 받는 ‘딤미(dhimmi)’¹³⁾로서 인두세(jizya)를 내고 원래 신앙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마지막 선택지를 고른 유대인은 이슬람 정치 체제에서 원래 종교와 공동체의 자치를 인정받으며 살 수 있었다(Kramer 1994). 대표적 예로 이슬람 세력이 중세 이베리아반도 남부 안달루시아를 지배할 때 유대인과 무슬림이 평화롭게 살았지만, 기독교 세력이 이베리아반도를 재정복하자 유대인이 기독교 세력의 탄압을 피해 대거 이슬람 세계로 이주한 사실을 들 수 있다(티비 2013, 108).¹⁴⁾

그러나 무함마드가 스스로 예언자임을 내세우며 신의 계시에 기초한 이슬람 공동체를 건설하려 했던 서기 623~627년 메디나¹⁵⁾에 살던 유대인을 노예로 삼거나 죽이고 아라비아 반도에서 쫓아낸 적이 있다. 왜냐하면 당시 메디나의 많은 유대인 중 상당수가 무함마드를 새로운 예언자로 인정하지 않았고, 무함마드가 전하는 계시를 거부하고 강하게 비판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유대인과 무함마드 간에는 갈등이 있었다.¹⁶⁾ 이 갈등에 관해 피어스턴은 유일신 종교의 정통성을 놓고 신생 종교 이슬람과 기존 유대교가 경쟁하던 당시 상황을 고려해야 하며, 코란에는 반유대주의가 없다고 보는 반면(Firestone 2020), 압텔사마드는 무함마드가 유대인을 도덕적·신학적 경쟁자로 생각했고, 자신을 따르지 않는

13) 초기 이슬람 시대 딤미에 대한 차별 조치는 (황의갑 2011, 65-67)을 볼 것.

14) 이슬람의 정복과 지배가 항상 평화로웠고, 모든 피정복민이 이슬람을 자발적으로 환영한 것은 아니었다. 코란 2:256은 종교가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도(최영길 2010, 59), 코란 9:29은 무슬림에게 책의 사람들이 항복해 인두세를 낼 때까지 그들에 대해 성전(聖戰)하라고 한다(최영길 2010, 234). 서기 7세기 아랍 군대가 이집트를 침략한 후 무슬림 통치자가 기독교도에게 부과한 지나친 인두세와 박해 때문에 이집트에서 기독교가 소수 종교가 되었고(이나빌 2018), 종교 간 공존의 모범으로 소개되는 이슬람의 이베리아반도 정복에서도 유대인 대량 학살이 있었다(맥세인 2016, 279). 그리고 인두세가 이슬람의 관용을 상징하지만, 국가 세수(稅收) 확보를 위해 무슬림 통치자가 인두세를 내는 딤미의 개종을 강요하지 않은 측면도 있었다(황의갑 2011, 62).

15)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도시로서 메카, 예루살렘과 함께 이슬람 3대 성지다.

16) 무함마드와 유대인 간 갈등에 관해서는 (후지모토 2010)를 볼 것.

유대인을 향한 증오가 계시의 형태로 나타났다고 주장한다(압드엘-사마드 2016, 267-283). 무함마드와 유대인이 갈등을 빚었던 초기 메디나 시기를 제외하면, 실제로 유대인은 수 세기 동안 이슬람 세계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었고, 유럽과 비교했을 때 유대인 대학살은 드물었다(Bundesamt für Verfassungsschutz 2019, 14). 코란이 문자로 기록되고 무함마드의 언행에 관한 하디스가 수집되고 편찬될 때는 이슬람이 태동한 후 정복 사업을 통해 팽창하던 시기였다. 따라서 전통적으로 무슬림에게 유대인은 “증오와 공포”보다 딤미로서 “멸시”의 대상이었다(Hassan 2009, 454). 19세기 중동에 유럽의 반유대주의 서적을 아랍어로 번역해 들여오고, 유럽의 반유대주의를 주제로 책을 출간한 쪽은 무슬림이 아니라 유대인을 상업적 경쟁자로 생각한 아랍인 기독교도들이었다. 당시 중동을 통치했던 오스만제국은 이런 움직임에 반대해 반유대주의를 선동하는 신문을 폐간시켰고(Hassan 2009, 455), 낯설고 이해가 안 가는 반유대주의 서적은 대중의 인기를 얻지 못했다(티비 2013, 114). 따라서 20세기 이전 이슬람 세계에서 유대인을 향한 편견은 있었어도 유대인을 악마화하는 반유대주의는 없었다(티비 2013, 104). 그러나 서양 제국주의가 중동을 침탈하면서 유럽의 반유대주의가 유입되었고, 수세에 몰린 이슬람 세계가 위기의식을 느낄 때마다 코란, 하디스, 무함마드 전기(傳記)에서 유대인을 언급한 내용은 반유대주의에 불을 지피는 불씨가 되었다.

Ⅲ. 반유대주의의 이슬람식 변용과 나치의 지원

1917년, 영국이 팔레스타인에 유대인 국가 설립을 약속한 벨푸어 선언(Balfour Declaration)을 계기로 1920년대부터 유럽의 많은 유대인이 팔레스타인으로 대거 이주했고, 그 결과 팔레스타인에서 유대인과 아랍인 간 폭력 충돌이 계속되었다. 이때부터 유럽의 반유대주의를 상징하는 피의 비방과 『시온 장로 의정서』가 중동 전역으로 퍼지며 반유대주의가 힘을 얻었다(Schroeter 2018, 1176). 당시 팔레스타인을 위임 통치하는 영국과 시온주의자에 맞서 팔레스타인 아랍인 저항운동을 이끈 인물은 아민 알후세이니(Amin al-Husseini)였다.¹⁷⁾ 1936년, 알후세이니는 기독교도와 무슬림이 모두 참여한 팔레스타인 아랍인 봉기를 주도하고, 1937년 팔레스타인을 유대인 국가와 아랍인 국가로

17) 알후세이니만큼 중요한 인물이 불신자에 대한 전투적 지하드를 벌여 서기 7세기 이슬람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을 펼친 이즈 앳딘 알카삼(Izz ad-Din al-Qassam)이다(Küntzel 2005, 105). 알카삼은 1935년 영국군과의 교전 중 전사했다. 하마스의 무장 조직 알카삼 여단(Al-Qassam Brigades)과 카삼 로켓은 그의 이름을 딴 것이다.

나누는 영국 필위원회(Peel Commission)의 계획을 거부한 민족주의자이기도 했지만, 예루살렘의 대법관(Grand Mufti)이라는 종교적 지위를 이용해 유럽의 반유대주의 원형(原形)을 이슬람식으로 변용(變用)한 장본인이기도 했다. 1937년, 알후세이니는 시온주의자가 아닌 유대인 전체를 겨냥해 처음부터 유대인이 이슬람의 적(敵)이었고, 이슬람을 파괴하려는 유대인에 맞서 팔레스타인 아랍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 무슬림이 싸워야 한다고 선언했다(Spoerl 2020, 212-213).

대외적으로는 1930년대부터 영국과 유대인을 경계하는 나치(Nazi)와 꾸준히 접촉하며 팔레스타인 아랍인 봉기에서 나치의 돈과 무기를 받았다. 외세에 맞서 나치의 도움을 받은 것이 무슨 문제냐는 반론이 있을 수 있지만, 알후세이니는 팔레스타인을 떠나 1941년 베를린에 정착한 후 인류 역사상 최악의 반인도적 범죄인 나치의 최종해결책(Endlösung), 즉 유대인 말살 계획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나치가 송출하는 아랍어 라디오 방송에서 반유대주의를 아랍·이슬람 세계에 전파했다(Küntzel 2005, 100-101). 또한 나치 친위대에서 복무할 무슬림을 모집해 인종 청소로 악명 높은 한자르(Handschar) 사단을 창설했다(Patterson 2016, 191-192).¹⁸⁾ 당시 무슬림 병사들에게 배포한 알후세이니의 소책자 『이슬람과 유대교(Islam I Židovstvo)』는 이슬람식 반유대주의가 무엇인지 잘 보여준다. 이 책은 초기 메디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유대인이 무함마드를 계속해서 죽이려 했다는 내용과 무슬림과 유대인 간 전쟁을 예언한 ‘최후의 심판’ 하디스를 담았다(Havel 2015).

최후의 심판은 오지 않으리라. 무슬림이 유대인에 맞서 싸우고 죽일 때까지, 유대인이 바위와 나무 뒤에 숨고 바위와 나무가 “오, 그대 무슬림이여, 오, 그대 알라의 종이여, 여기 내 뒤에 숨은 자는 유대인이니 와서 그를 죽이시오”라고 말할 때까지.(Al-Nawawi: Sahih Muslim, Hadith Nr. 2922, 압드엘-사마드 2016, 281-282에서 재인용)

나치 외에 알후세이니와 가장 가까웠던 조직은 1928년 이집트에서 알반나가 창단한 무슬림형제단이었다. 알후세이니의 이슬람식 반유대주의는 “알라는 우리의 목표이고, 예언자는 우리의 모델이며, 코란은 우리의 헌법이고, 지하드(jihad)¹⁹⁾는 우리의 길이며,

18) 알후세이니와 나치는 서로 공감했다. 1941년 11월 28일, 아돌프 히틀러(Adolf Hitler)를 만났을 때 알후세이니는 나치와 아랍인이 똑같이 유대인 말살 투쟁을 벌이고 있다고 했으며(Küntzel 2005, 191), 히틀러는 이슬람이 유럽을 정복하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며 기독교보다 이슬람이 게르만족에 더 잘 어울렸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Speer 1971, 142, Herf 2014, 36에서 재인용).

19) 지하드는 아랍어로 노력 또는 투쟁을 의미한다. 지하드에는 개인의 수양뿐만 아니라 선교 또는 불신자와 벌이는 물리적 투쟁도 있으며, 서기 7~17세기 무슬림은 이슬람을 확산하려는 지하드를 수행했다(티비 2013, 58). 티비는 지하드에 관한 알반나의 생각이 이슬람 생명윤리와

알라를 위한 죽음은 우리의 가장 고귀한 소원이다”라는 무슬림형제단의 신조와 융합해 한층 더 이론적으로 체계화되고, 대중 속으로 파고들었다. 팔레스타인을 이집트의 일부라고 생각한 무슬림형제단은 유대인 국가가 이슬람 성지 메카와 메디나를 포함해 중동 전체를 장악하고 아랍과 이슬람 세계 전체를 위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Spoerl 2020, 215). 1935년, 무슬림형제단은 예루살렘에서 알후세이니와 동맹을 맺고, 1936~1939년 영국과 시온주의자에 대항하는 팔레스타인 아랍인 봉기를 지원했다(Krämer 2006, 258). 또한 무슬림형제단은 나치를 모델로 선전위원회를 조직한 후(Patterson 2016, 190), 이집트 내 유대인 기업에 대한 불매운동을 펼치고 유대인이 아랍인 여성과 어린이 수백 명을 죽였다는 낭설을 퍼뜨리며 예루살렘 알아크사(Al-Aqsa) 모스크²⁰⁾를 지키기 위해 지하드에 나서야 한다고 이집트의 반유대주의를 자극했다. 반유대주의를 공통분모로 나치에게서 금전적·기술적 지원을 받은 무슬림형제단은 인쇄 공장을 설립해 최신식 선전 방법으로 대중에게 반유대주의를 선동하는 소책자 수만 부를 배포하고 무장 조직까지 결성했다(Küntzel 2005, 107-108). 1938년 10월에는 카이로에서 아랍 및 무슬림 국가 의회 회의(Parliamentary Conference for Arab and Muslim Countries)를 조직해 아랍어로 번역된 히틀러의 『나의 투쟁』과 『시온 장로 의정서』를 배포했다(Patterson 2016, 190).²¹⁾ 팔레스타인 문제를 이집트 사회에 끌어들이 반유대주의 선전 선동을 수행한 무슬림형제단은 1936년에 그 회원 수가 800명에 불과했지만, 1938년에는 20만 명에 이르렀다(Küntzel 2005, 106).²²⁾

1945년 5월, 나치의 패망과 함께 무슬림 나치 친위대가 저지른 잔학 행위에 책임이 있던 알후세이니는 프랑스에 구금되었다. 그러나 종전 후 지부 1,500개와 회원 50만 명을 보유한 이집트 무슬림형제단은 연합국에 알후세이니를 석방하도록 압력을 가했고, 연합국은 알후세이니에게 전쟁범죄 책임을 묻지 않았다(Küntzel 2014, 44-45). 무슬림형제단은 나치 부역자 알후세이니를 아랍의 영웅으로 떠받들고, 알후세이니가 팔레스타인에

상반되며, 죽음을 미화하는 이슬람주의가 자살 테러를 정당화한다고 본다(Tibi 2015, 467).

20) 무함마드가 승천했다고 전해지는 곳으로 이슬람의 3대 성지다.

21) 크래머에 따르면, 알반나는 인종주의가 이슬람에 배치된다고 비난하면서도 과시즘이 강조하는 단결과 강력한 지도력에 매력을 느꼈다(Krämer 2006, 258). 패터슨과 쿤첼은 아랍·이슬람 세계에서 반유대주의가 확산할 수 있었던 결정적 요인으로 나치가 무슬림형제단에 끼친 영향력을 꼽는다. 그러나 쿤첼이 무슬림형제단 창립자 알반나가 비(非)무슬림인 히틀러를 존경하지 않았다고 보는 반면(Küntzel 2005, 108), 패터슨은 알반나가 히틀러를 존경해 1930년대 뉘른베르크 전당대회에 대표단을 보낼 정도였다고 주장한다(Patterson 2016, 190).

22) 나치가 전파한 유럽의 반유대주의는 무슬림형제단에 성공적으로 이식되었다. 1944년 9월, 이집트 무슬림형제단 탄타(Tanta) 지부장은 유대인을 유월절에 “무슬림과 기독교도의 피를 사용한 과립치한 민족”이라고 표현했다(Küntzel 2014, 44).

서 반유대주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날개를 달아주었다. 영국이 알후세이니의 팔레스타인 입국을 허용하지 않자 알반나는 팔레스타인 무슬림형제단 지도자로 알후세이니를 임명했고(Spoerl 2014, 24), 1년 후 카이로에 도착한 알후세이니는 큰 환대를 받았다. 1945년 11월, 무슬림형제단은 카이로 유대인 구역 상점과 회당을 공격하는 시위를 주도했고, 이 반유대주의 폭동은 알렉산드리아까지 확산했다(Küntzel 2014, 47). 1946년 6월, 알반나는 히틀러가 사라졌어도 시온주의에 맞선 알후세이니의 투쟁은 계속된다는 성명을 아랍연맹(League of Arab States)²³⁾에 보냈다(Herf 2009, 734). 이집트 정부는 무슬림형제단의 폭동을 염려했고, 이집트가 주도하는 아랍연맹은 알후세이니를 팔레스타인 지도자로 임명했다(Spoerl 2014, 25).²⁴⁾

1947년 11월 29일, 팔레스타인을 분할하는 유엔 총회 결의안에 회원국 2/3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 팔레스타인의 56%가 유대인 국가에, 43%가 아랍인 국가에 할당되었고, 예루살렘은 국제 관리 지역으로 지정되었다(Küntzel 2014, 39). 아랍인은 이 분할안을 거부했지만, 시온주의자와 전쟁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했다. 분할안의 당사자 팔레스타인 아랍인은 이미 수만 명이 유대인 감귤 농장에서 일하고 있었고, 시온주의자의 군사력을 알고 있던 터라 대부분 전쟁에 반대했다(Küntzel 2014, 40-41). 그러나 알반나는 유엔의 개입을 시온주의 영향 아래 있는 미국, 러시아, 영국의 국제적 음모로 간주했고, 알후세이니는 팔레스타인에서 영국군이 철수하자마자 아랍인이 유대인을 협공해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Küntzel 2005, 110). 1947년 12월, 카이로에서 아랍연맹 회의가 열리자 무슬림형제단은 시위대 10만 명을 동원해 의용병으로 팔레스타인에서 싸울 뜻을 내비치며 이집트를 필두로 아랍 국가들이 시온주의자와의 전쟁을 선택하도록 유도했다(Küntzel 2014, 45).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 건국이 선언되자 이집트, 요르단,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이 이스라엘을 침공했다(Küntzel 2014, 39). 그러나 알후세이니와 무슬림형제단이 부추겼던 아랍-이스라엘 전쟁은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났고, 이스라엘은 유엔 분할안보다도 훨씬 더 많은 땅을 차지했다. 이슬람주의 무슬림형제단 관점에서 보면, 이슬람 정치 체제의 지배를 받지 않는 담미 유대인 국가가 팔레스타인에 들어섰다. 1948년, 마흐무드 안누크라시(Mahmoud an-Nukrashi) 이집트 총리가 국가 기관과 이집트 내 유대인을 공격하는

23) 1945년 3월, 이집트 카이로를 본부로 사우디아라비아, 레바논, 예멘, 트란스요르단, 이집트, 이라크, 시리아가 결성했다.

24) 나치가 아랍·이슬람 세계에 미친 영향력이 미미했다고 보는 쪽은 1946년 이집트 정부가 알후세이니를 환영한 것은 전후 시온주의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영국에 맞선 반식민주의 투쟁의 일환이었고, 오히려 나치에 부역한 이력 때문에 알후세이니는 팔레스타인에서 정치적 실권을 잃었다고 본다(Freitag et al. 2011, 326).

무슬림형제단을 강제 해산하자 무슬림형제단원이 총리를 암살했고, 이로 인해 1949년 알반나가 암살되면서 무슬림형제단은 공식적으로 폭력을 포기하고 온건 노선으로 전환했다.²⁵⁾

IV. 이슬람주의식 반유대주의

1949~1951년 미국에 유학하면서 서방 물질문명에 혐오를 느끼고 이집트로 돌아와 무슬림형제단에 가입한 사이드 쿠틀(Sayyid Qutb)은 코란을 재해석해 이른바 ‘이슬람주의식 반유대주의(Islamist anti-Semitism)’를 만들었다. 1954년부터 세속적 민족주의 성향의 이집트 정부가 무슬림형제단을 박해하면서 쿠틀은 체포되었고, 옥고를 치르면서 쿠틀은 알반나보다 훨씬 더 급진적 이념을 발전시켰다. 상대적으로 알반나의 이슬람주의가 이집트를 바꾸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면, 쿠틀의 이슬람주의는 샤리아를 따르지 않는 이집트 정부를 타도하고, 더 나아가 세계 혁명 차원에서 불신자를 상대로 공격적 지하드, 즉 무장 투쟁을 감행해 이슬람 질서를 수립해야 하며, 세계를 지배하려는 유대인이 이슬람의 경쟁자이자 이슬람을 위협하는 존재라고 주장했다(쿠틀 2011). 유대인에 대한 쿠틀의 시각은 다음과 같다.

메디나에 정착한 초기 이슬람국가를 저해하고, 메카의 명족인 쿠라이시족을 비롯한 부족들을 선동하여 이슬람교의 근간을 흔들려고 했던 장본인이 누구인가? 바로 유대인이다. 내란을 일으키고, 3대 칼리프인 오스만을 시해해 비극을 초래한 세력의 배후에 누가 있는가? 유대인이 있다. 게다가 마지막 칼리프에 대항하여 국가의 분열을 부추기고 소요를 일으켜 샤리아 폐지를 유도한 아타튀르크는 누구인가? 역시 유대인이다. 그들이 오늘날까지 이슬람교와 분쟁을 벌여온 탓에 세계 곳곳에서 이슬람교의 부흥이 가로막혔다. (Qutb 1989, 33, 티비 2013, 117에서 재인용)

쿠틀이 저술한 『유대인과의 투쟁(Our Struggle with the Jews)』은 수 세기에 걸친 무슬림과 유대인의 공존, 이슬람의 관용을 외면한 채 초기 메디나 시대 무함마드와

25) 알반나는 이슬람주의를 구현하기 위해 단계적 지하드를 선호했고, 성전에 임할 때까지는 장기적으로 대중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평화적 선교를 우선시했다(Sattar 1995, 26). 따라서 이집트 무슬림형제단은 모스크를 중심으로 직능 단체, 대학 학생회 등을 장악하고, 빈민층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식으로 풀뿌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확장하는 데 주력했다(Abed-Kotob 1995).

유대인 사이의 갈등에 집중했다. 그 결과 유대인은 1,400년 동안 이슬람의 원수이자 음모를 꾸미는 족속으로 유대인과의 투쟁은 영원할 수밖에 없다는 반유대주의가 이슬람주의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되었다. 쿠툼은 무슬림과 유대인 간 대결을 예언한 최후의 심판 하디스를 인용하고, 『시온 장로 의정서』와 유대인이 악의 본질이며, 인류의 보이지 않는 적이라는 나치의 반유대주의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쿠툼은 알라가 사악한 유대인을 벌하고자 히틀러를 보냈으니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돌아온 유대인을 응징할 사람도 보내주기를 바랐다(Spoerl 2020, 215). 쿠툼은 코란에 정통했기 때문에 유대인이 책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잘 알았으나 의도적으로 “유대인 불신자”라는 등급을 따로 만들었다(티비 2013, 116). 티비에 따르면, 쿠툼이 발명한 이슬람주의식 반유대주의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이슬람교를 겨냥한, 유대인의 음모는 622년 이후 계속 전수되어 왔다.²⁶⁾

유대인은 세계를 지배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슬람교의 통치권을 박탈하려고 한다.

유대인은 시온주의의 주된 목표인 세계통치를 위해 다양한 “비밀”결사대 - 이를 테면, 프리메이슨 등 - 를 두고 있다.

십자군 전쟁 이후, 유대인은 기독교인을 대리자로 이용해왔다.²⁷⁾

현재 미국은 유대인이 통치하고 있다.(티비 2013, 152)

쿠툼의 이슬람주의식 반유대주의에서 눈여겨볼 점은 시온주의자와 전 세계 유대인을 동일시할 뿐만 아니라 십자군, 특히 미국을 유대인의 대리자로 지목하고 미국과의 전쟁을 암시했다는 점이다. 유대인이 미국 각 분야를 장악한 후 세계를 지배한다는 쿠툼의 주장은 해방신학으로 칭송을 받으며 반유대주의와 반미주의를 같은 것으로 만들었고(티비 2013, 119), 유대인 자본가 네트워크가 노동 계급을 억압한다는 반유대주의 음모론은 반(反)자본주의, 반(反)세계화, 반(反)제국주의를 외치는 좌파에게 호소력을 발휘했다(Rich 2021, 328). 그 결과 서방 세계에서 이슬람주의자, 이슬람주의자까지는 아니더라도 쿠툼에 심정적으로 동조하는 무슬림 이민자와 유학생, 극우 백인 민족주의자, 진보 좌파가 반(反)이스라엘 시위에서 다 같이 반유대주의 구호를 외치는 진풍경이 연출될 수 있었다.

1966년, 이집트 정부가 쿠툼을 처형하자 쿠툼은 이슬람주의의 순교자가 되었다. 그러나

26) 쿠툼은 무함마드가 유대인을 동맹으로 생각해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다가 메카로 기도 방향을 바꾼 서기 622년부터 무슬림과 유대인 간의 전쟁이 시작되었다고 생각했다(Tibi 2015, 467).

27) 실제 역사에서 십자군 전쟁은 시온주의와 팔레스타인 문제가 있기 훨씬 전의 일이며, 유대인은 십자군과 싸우다 희생당하기도 했다(티비 2013, 124-125).

1967년 ‘6일 전쟁(Six-Day War)’에서 아랍 민족주의 세력이 이스라엘에 굴욕스러운 패배를 당하고 성지 예루살렘마저 잃자 아랍·이슬람 세계에서 반유대주의 담론은 아랍인에서 이슬람으로 옮겨갔고, 팔레스타인 해방은 종교적 대의가 되었다(Schroeter 2018, 1177).²⁸⁾ 1970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유대인과의 투쟁』이 출판되어 이슬람주의식 반유대주의의 가장 영향력 있는 저작으로 수십 년 동안 큰 반향을 일으켰다(Schroeter 2018, 1184). 결국 아랍·이슬람 세계에서 종교색을 배제한 세속적 아랍 민족주의 대신 타 종교와 평등한 공존을 거부하는 이슬람주의가 부상하고 이슬람주의식 반유대주의가 자리를 잡으면서 팔레스타인 문제 해결은 훨씬 더 어려워졌다.

V. 하마스의 정체성

공식적으로 하마스는 1987년 12월 9일 제1차 인티파다 이후 아흐메드 야신(Ahmed Yassin)이 이집트 무슬림형제단 팔레스타인 지부로 결성한 무장 조직이다. 그러나 훨씬 전부터 팔레스타인에는 무슬림형제단 지부들이 있었고, 무슬림형제단이 알후세이니를 수장으로 하는 예루살렘 지부를 설립한 것은 1946년 5월이었다(Bartal 2021, 385). 1948년, 제1차 중동전쟁 후 무슬림형제단 팔레스타인 지부의 서안지구는 요르단 무슬림형제단, 가자지구는 이집트 무슬림형제단 관할이 되었다. 따라서 가자지구는 전 세계에 있는 무슬림형제단의 다른 어느 지부보다도 알후세이니와 쿠툼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았다(Bartal 2021, 386). 1948년, 이스라엘 건국 후 난민이 되어 가자지구로 쫓겨난 야신은 어린 시절 알후세이니를 존경했고, 1957년 이집트 유학 시절 무슬림형제단에 가입했다(Zografos 2021, 38-39). 이집트에서 아랍어와 종교 교사로 근무하다 1966년 이집트 정부가 무슬림형제단을 대대적으로 탄압하는 과정에서 쿠툼과 함께 체포되었으나, 석방된 후 가자지구로 돌아와 무슬림형제단 재건에 힘썼다(Bartal 2021, 386). 그리고 1973년 가자지구에서 이슬람센터(Mujama al-Islamiya)를 설립해 대학, 도서관, 모스크, 학교를 짓는 자선사업에 나서 1979년 협회로 이스라엘 정부 승인까지 받았다(Working Class History 2023).²⁹⁾ 야신은 지하드를 수행할 준비가 될 때까지 장기적으로 개개인의 신앙을

28) 아랍 민족주의자들도 반유대주의를 선동했다. 가말 압델 나세르(Gamal Abdel Nasser) 이집트 대통령은 『시온 장로 의정서』를 아랍 지역에 유포했고, 이집트로 도피한 많은 나치 전범을 반유대주의 선전에 활용했다(Küntzel 2005, 110). 1950년대 아랍 민족주의자들은 이스라엘의 죄악에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아랍 지역에 살던 유대인 80만 명을 추방했다(Kramer 1994). 또한 1967년 6일 전쟁 당시 카이로 라디오는 시온주의자를 절멸해야 한다고 방송했다(맥세인 2016, 307).

강화하기 위해 모스크를 중심으로 선교와 사회복지 활동에 전념하는 이집트 무슬림형제단의 단계적 지하드를 충실히 따랐고, 필요한 자금은 미국, 유럽, 사우디아라비아 및 걸프 국가들의 기부금으로 충당했다(Bartal 2021, 386-387). 그리고 마침내 1987년 제1차 인티파다가 발발하자 야신은 “카이바르, 카이바르, 오, 유대인아, 무함마드의 군대가 돌아온다”라는 구호를 만들고, 하마스를 창설했다. 하마스는 코란 17:4절을 인용해 유대인이 처음에 메디나를 타락시켰고, 두 번째 이스라엘로 팔레스타인을 타락시켰다고 주장했다(Bartal 2021, 381-382). 1988년 제정된 '하마스 규약(Hamas Covenant)'은 알후세이니, 알반나, 쿠팁을 거치며 완성된 이슬람주의와 이슬람주의식 반유대주의를 집약해 놓았다.

하마스는 무슬림형제단의 이슬람주의를 계승하되 팔레스타인 상황을 규약에 반영했다. 규약은 이슬람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까지 이스라엘이 존재할 것이라는 알반나의 말로 시작하며, 2조는 하마스가 무슬림형제단의 날개이며, 6조는 팔레스타인 전역에 알라의 깃발을 흔들 것이라고 선포한다. 8조는 알라를 목표로 지하드를 미화하는 무슬림형제단의 신조를 적었고, 11조는 서기 644년 이슬람 세력이 예루살렘을 정복한 이후 팔레스타인은 이슬람의 성역이었음을 강조한다(Lillian Goldman Law Library 2008).³⁰⁾ 이렇게 종교적 명분을 내건 투쟁에서 타협, 화해, 공존은 있을 수 없다. 13조는 평화적 해결책과 국제회의를 거부하고, 15조는 성지 예루살렘이 있는 이슬람 땅을 강탈한 적에 맞서 무슬림의 지하드를 촉구한다(Lillian Goldman Law Library 2008).³¹⁾ 또한 규약은 알후세이니와 쿠팁의 반유대주의를 내세운다. 7조는 최후의 심판 하디스를 인용하고, 20조는 시온주의자가 아닌 유대인을 적으로 지칭한다. 22조는 적들이 프랑스 혁명, 공산주의 혁명 등 대부분의 혁명과 두 차례 세계대전의 배후에 있었고, 국제연맹을 유엔과 안전보장이사회로 대체해 세계를 지배하고 있으며, 28조는 프리메이슨, 로터리 클럽, 라이온스 클럽 등 비밀결사에 의존해 시온주의가 마약과 술로 인류를 타락시키고 이슬람을 말살하려 한다고 주장한다. 32조는 세계 시온주의와의 투쟁에서 벗어난 것은 반역이며, 평화를 위해 이스라엘과 캠프데이비드 협정(Camp David Accords)을 맺은 이집트를 배신자로 간주하고, 시온주의자가 팔레스타인을 넘어 나일강에서 유프라테스강까지 확장하고 싶어 한다는 근거로 『시온 장로 의정서』를 제시한다(Lillian Goldman Law Library 2008).³²⁾ 따라서 하마스는 시온주의자와 유대인을 구분하지 않으며, 허위 사실과 위서에 기반한 유대인 음모론을

29) 출처: <https://stories.workingclasshistory.com/article/11419/mujama-al-islamiya-recognised-by-israel> (검색일: 2024. 02. 05.).

30) 출처: https://avalon.law.yale.edu/20th_century/hamas.asp (검색일: 2024. 02. 05.).

31) 출처: https://avalon.law.yale.edu/20th_century/hamas.asp (검색일: 2024. 02. 05.).

32) 출처: https://avalon.law.yale.edu/20th_century/hamas.asp (검색일: 2024. 02. 05.).

추종한다.

하마스에 영향을 준 중대 사건은 본부 이집트 무슬림형제단의 몰락이었다. 2011년, 아랍의 봄(Arap Spring)이 몰고 온 민주화 물결 속에서 정치 전면에 나서지 않았던 이집트 무슬림형제단은 정당을 만들고, 선거에 참여해 2012년 집권에 성공했으나, 정책적 무능과 이슬람주의에 반발한 국민의 저항과 군부 쿠데타로 1년 만에 권력을 내주고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등지에서 불법화되었다.³³⁾ 2017년, 하마스는 ‘일반원칙과 정책(General Principles and Policies)’을 발표했다. 일반원칙과 정책이 1988년 규약과 가장 크게 다른 점은 이집트 무슬림형제단과의 연관성을 더 이상 언급하지 않으며, 16조에서 하마스는 유대인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팔레스타인을 점령한 시온주의 프로젝트와 싸우는 것이라고 단언한다는 점이다(Hamas 2017).³⁴⁾ 반유대주의를 포기한 것 같지만, 하나씩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 2조는 “동쪽의 요르단강에서 서쪽의 지중해까지” 팔레스타인 영토의 범위를 정하고, 3조에서 팔레스타인이 아랍 이슬람 땅이며, 18조는 유엔의 팔레스타인 분할 결의안 등 두 국가 해법과 이스라엘이 이슬람 공동체 뜻에 어긋난다고 선언하고, 19조는 이스라엘을 “시온주의 독립체(Zionist entity)”로 지칭해 국가로서의 정당성을 부인한다(Hamas 2017).³⁵⁾ 2006년 1월, 팔레스타인자치정부(Palestinian Authority) 입법위원회 선거에서 하마스가 승리한 직후 러시아, 미국, 유럽연합, 유엔은 하마스를 국제적으로 승인하는 조건으로 이스라엘을 공식 인정하고, 폭력을 거부하며, 평화 프로세스 안에서 협상에 나설 것을 하마스에 요구했지만, 하마스는 이를 모두 거절했으며(Bartal 2021, 393), 일반원칙과 정책도 유대인 국가 이스라엘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는 반시온주의를 가장(假裝)한 반유대주의와 차이가 없다.

무엇보다도 1988년 규약을 제정한 후 2017년 일반원칙과 정책을 발표할 때까지 하마스는 반유대주의를 오히려 강화했다. 2004년, 하마스 창립자 야신이 죽은 후 하마스의 정신적 지도자는 무슬림형제단과 연계된 유수프 알카라다위(Yusuf al-Qaradawi)였다. 이집트 정부의 탄압을 피해 일찍이 카타르에서 활동해왔던 알카라다위는 하마스의 자살폭탄

33) 초국가적 네트워크를 자랑하는 무슬림형제단의 지하드는 각 지부가 처한 환경에 따라 다르다. 정부로부터 탄압을 받아온 본부 이집트 무슬림형제단이 사회 운동에 전념했으며 민주화를 요구하는 온건 노선을 취한 반면, 팔레스타인 지부 하마스는 무장 투쟁을 택한 데서 알 수 있다. 그러나 테러나 투표함이나 지하드의 방법만 다를 뿐 이슬람주의의 목표는 “장기적으로 세계 지배를 목표로 샤리아에 따라 이슬람 사회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다(Abdel-Samad 2016, 23).

34) 출처: <https://web.archive.org/web/20170510123932/http://hamas.ps/en/post/678/> (검색일: 2024. 02. 05.).

35) 출처: <https://web.archive.org/web/20170510123932/http://hamas.ps/en/post/678/> (검색일: 2024. 02. 05.).

테러를 정당화하는 파트와(fatwa)³⁶)를 내린 인물이다. 알카라다위는 아랍권의 대표적 방송국 알자지라(Al Jazeera) 아랍어 채널에서 수천만 명이 시청하는 종교 프로그램 진행자로 큰 인기를 얻었고, 수니파 이슬람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학자로 유명했다. 알카라다위를 진보적 무슬림으로 착각하기도 하지만, 알카라다위는 쿠툼의 후계자다(티비 2013, 135-136). 알카라다위는 신에게 유대인을 마지막 한 명까지 죽여달라고 했을 뿐만 아니라 히틀러를 찬양하며 히틀러가 유대인 탄압을 끝내지 못한 것에 안타까움을 표하기도 했다(맥세인 2016, 250). 또한 하마스와 무슬림형제단의 미국과 서유럽 지부는 외부에 이슬람 색채를 최대한 드러내지 않으면서 조직원과 무슬림에게 반유대주의를 노골적으로 표출했고, 하마스 간부들은 시종일관 시온주의자와 유대인을 같은 의미로 사용해왔다. 하마스가 운영하는 TV 방송국은 유대인을 악마화하고 유대인 말살을 정당화하는 내용을 방영해왔고, 하마스가 감시하고 통제하는 가자지구 모스크는 일반원칙과 정책이 발표되기 직전까지도 반유대주의 설교를 했다(Spoerl 2020, 216-220).

일반원칙과 정책 25조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점령에 저항하고, 26조는 저항 세력과 그 무기를 약화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거부한다고 천명한다(Hamas 2017).³⁷) 따라서 테러와 폭력적 지하드는 계속된다. 30조는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통해 팔레스타인 국가 기관을 세워야 하고, 31조는 팔레스타인자치정부가 팔레스타인 국민에게 봉사해야 한다고 강변한다(Hamas 2017).³⁸) 그러나 하마스는 2006년 1월 팔레스타인자치정부 입법위원회 선거에서 승리하기도 했지만, 2007년 6월 가자지구를 손에 넣기 위해 내전을 일으켜 세속주의 성향의 파타흐 소속 대원들을 벌거벗긴 채 끌고 다니다 사막에서 살해하고, 15층 건물에서 떨어뜨려 죽이는 등 팔레스타인 민족운동을 분열시켰다(Bartal 2021, 393). 민족보다 종교를 우선시하고 세속주의에 반대하며 가자지구에서 반대 의견을 용납하지 않는 등 이슬람주의의 전체주의적 속성을 지닌 하마스는 민족주의 투사가 아니며 팔레스타인을 대표한다고도 볼 수 없다.

그렇다면 하마스는 왜 이스라엘과 수교하려는 다른 아랍 국가들을 비난하고, 가자지구 민간인 피해가 뻗은 데도 이스라엘을 상대로 무장 투쟁을 고수하면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을 도발한 것일까? 먼저 이집트, 요르단, 아랍에미리트에 이어 사우디아라비아까지 이스라엘과 수교하려 하자 하마스를 후원하는 이란의 입김이 작용했고, 하마스 또한

36) 샤리아에 근거한 종교적 의견이다.

37) 출처: <https://web.archive.org/web/20170510123932/http://hamas.ps/en/post/678/> (검색일: 2024. 02. 05.).

38) 출처: <https://web.archive.org/web/20170510123932/http://hamas.ps/en/post/678/> (검색일: 2024. 02. 05.).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의 수교 시 팔레스타인 내 경쟁자 파타흐와 경쟁 구도에서 밀릴 것을 우려했다는 대내외 정치적 요인을 들 수 있다(장지향 외 2023).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이 연구는 유대인이 아랍·이슬람 세계를 지배할지도 모른다는 유대인 음모론에 하마스가 갇혀 있다고 본다. 일례로, 하마스 대변인이었던 이브라힘 가우샤(Ibrahim Gawshah)는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과 평화 협정을 맺거나 국교를 정상화하면, 기술과 과학이 뛰어난 이스라엘에 경제적으로 종속될 것이고, 유대인이 유입되어 아랍 국가들을 타락시킬 것이며, 쫓겨났던 카이바르로 돌아와 선조들의 권리를 요구할 것이므로 유대인과 싸워야 한다고 했다(Kramer 1994).

따라서 이슬람주의와 반유대주의를 체화(體化)한 하마스 사전에 이스라엘 및 유대인과의 공존과 평화란 있을 수 없으며, 하마스가 무장 투쟁을 견지해오고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을 일으킨 근본 원인도 이 이념적 정체성에서 비롯되었다. 그렇다면 앞으로 하마스-이스라엘 관계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전술상 잠시 휴전은 있을지 몰라도 이스라엘이 소멸할 때까지, 팔레스타인의 다른 경쟁자를 제거해 이슬람 국가를 세우고 그 안에 유대인을 담미로 복속시킬 때까지, 세계 정복을 노리는 유대인을 전멸시키고 전 지구에 이슬람 질서를 수립할 때까지 하마스의 이스라엘, 아니 유대인과의 투쟁은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이다.

Ⅵ. 나가며

이 연구는 2023년 10월 7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을 기점으로 전 세계 반(反)이스라엘·친(親)팔레스타인 시위에서 하마스가 내세우는 반유대주의 구호가 등장하는 것에 주목해 하마스 반유대주의의 이념적 기원을 추적하고 하마스의 정체성을 탐구함으로써 하마스의 무장 투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의 본질을 밝히고자 했다. 이를 위해 하마스의 핵심 이념인 이슬람주의와 반유대주의 개념을 정리하고, 무함마드와 유대인 간 갈등과 이슬람 세계에서 유대인의 지위를 역사적으로 고찰해 이슬람 전통에는 반유대주의가 없었음을 확인했다. 그리고 유럽에서 기원한 반유대주의가 시온주의와 맞물려 아랍·이슬람 세계에서 부각되었고, 나치와 협력한 알후세이니와 이집트 무슬림형제단을 거쳐 이슬람식 반유대주의로 변용되었으며, 쿠툼이 주창한 폭력적 지하드와 이슬람주의식 반유대주의가 야신이 이끈 가자지구 무슬림형제단과 하마스에 직접 계승되었음을 하마스의 1988년 규약과 2017년 일반원칙과 정책을 항목별로 분석해 찾아내었다. 결국 하마스는 유럽의 반유대주의와 초기 메디나 시대 무함마드와 유대인 간 갈등에 집착한 20세기 이슬람주의가 결합해

탄생한 이슬람주의식 반유대주의의 화신(化身)이다. 과거 자살 폭탄 테러와 무장 투쟁에 이어 2023년 10월 7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을 도발한 것은 대내외 정치 환경에 대한 우려뿐만 아니라 유대인 음모론에 근거한 두려움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스라엘을 지도에서 지우고 이슬람 체제에 복종하지 않는 유대인을 절멸할 때까지 이스라엘과 전세계 유대인을 상대로 하마스의 지하드는 결코 끝나지 않는다. 설령 하마스가 사라지더라도 이슬람주의와 이슬람주의식 반유대주의가 이미 깊게 뿌리내린 이슬람 세계에서 제2, 제3의 하마스는 계속 출현할 것이다.



- 맥세인, 데니스. 황승구 역. 2016. 증오의 세계화: 반유대주의의 역사와 재창궐. 글항아리.
- 압드엘-사마드, 하메드. 배명자 역. 2016. 무함마드 평전: 선지자에서 인간으로. 한스미디어.
- 유왕중. 2006. 팔레스타인 총선거에서 하마스의 승리와 중동평화. 아시아연구 8(2), 191-215.
- 이나빌. 2018. 니끼우 요한의 연대기와 이슬람의 이집트 침략: 이집트 이슬람화 과정의 수수께끼와 콥트 교회의 비밀을 풀다. 기독교문서선교회.
- 인남식. 2006. 하마스의 총선 승리 이후 이·팔 평화협상 전망. 주요국제문제분석 2006(7), 1-16.
- 장병욱. 2009.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과 하마스. 중동연구 28(1), 153-185.
- 장지향. 2023. 최소한의 중동 수업: 세계 변화의 중심, 이슬람 세계의 모든 것. 시공사.
- 장지향·성일광. 2023.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분석과 전망. 아산정책연구원 25, 1-13.
- 최영길. 2010. 꾸란 주해. 세창.
- 최영철. 2002. 팔레스타인 이슬람 저항운동단체 하마스. 한국이슬람학회 논총 12(0), 59-76.
- 최영철. 2009. 하마스의 제도권 진입 이후의 전략과 행태의 변화. 한국이슬람학회 논총 19(3), 1-28.
- 쿠틀, 사이드. 서정민 역. 2011. 진리를 향한 이정표: 이슬람 원리주의 혁명의 실천적 지침서. 평사리.
- 티비, 바삼. 유지훈 역. 2013. 이슬람주의와 이슬람교: 이슬람 세계에 대한 오해와 이해. 知와 사랑.
- 홍미정. 2001. 하마스의 정체성 연구. 경희사학 23, 805-829.
- 황의갑. 2011. 담미 제도와 이슬람의 관용. 지중해지역연구 13(3), 57-78.
- 후지모토 카츠지, 구신숙·마루다 역. 2010. 무함마드와 유대인과의 이야기. SFC 출판부.
- Abdel-Samad, H. 2016. Islamic fascism. Prometheus Books.
- Abed-Kotob, S. 1995. The accommodationists speak: Goals and strategies of the Muslim Brotherhood of Egypt. International Journal of Middle East Studies 27(3), 321-339.

- Al-Nawawi, Y. I. S. 1996. Sahih Muslim. W. Al-Ruheli, ed. 6 Bände.
- Bartal, S. 2021. Ḥamās: The Islamic Resistance Movement. M. A. Upal & C. M. Cusack, eds. Handbook of Islamic sects and movements. Brill, 379-401.
- Bundesamt für Verfassungsschutz. 2019. Antisemitism in Islamist extremism. Bundesamt für Verfassungsschutz Public Relations.
- Firestone, R. 2020. Is the Qur'an antisemitic? A. Lange, K. Mayerhofer, D. Porat, and L. H. Schiffman, eds. Confronting antisemitism from the perspectives of Christianity, Islam, and Judaism. De Gruyter, 87-108.
- Freitag, U., & Gershoni, I. 2011. The politics of memory: The necessity for historical investigation into Arab responses to fascism and Nazism. Geschichte Und Gesellschaft 37(3), 311-331.
- Hamas. 2017. A Document of General Principles and Policies.
출처: <https://web.archive.org/web/20170510123932/http://hamas.ps/en/post/678/> (검색일: 2024. 02. 05.).
- Hassan, R. 2009. Interrupting a history of tolerance: Anti-Semitism and the Arabs. Asian Journal of Social Science 37(3), 452-462.
- Havel, B. 2015. Hajj Amin Husseini's anti-Semitic legacy. Middle East Quarterly, 1-11.
- Herf, J. 2009. Nazi Germany's propaganda aimed at Arabs and Muslims during World War II and the Holocaust: Old themes, new archival findings. Central European History 42(4), 709-736.
- Herf, J. 2014. Haj Amin al-Husseini, the Nazis and the Holocaust: The origins, nature and aftereffects of collaboration. Jewish Political Studies Review, 13-37.
- Krämer, G. 2006. Anti-Semitism in the Muslim world: A critical review. Die Welt Des Islams 46(3), 243-276.
- Kramer, M. 1994. The jihad against the Jews. Commentary 98(4).
- Kramer, M. 2017. The war on error: Israel, Islam and the Middle East. Transaction.
- Küntzel, M. 2005. National Socialism and anti-Semitism in the Arab world. Jewish Political Studies Review, 99-118.

- Küntzel, M. 2014. The aftershock of the Nazi war against the Jews, 1947-1948: Could war in the Middle East have been prevented? *Jewish Political Studies Review*, 38-53.
- Lillian Goldman Law Library. 2008. *Hamas Covenant 1988*.
출처: https://avalon.law.yale.edu/20th_century/hamas.asp (검색일: 2024. 02. 05.).
- Patterson, D. 2016. Islamic jihadism and the legacy of Nazi antisemitism. *Journal of Antisemitism* 7, 189-202.
- Qutb, S. 1989. *Ma'rakatuna ma'a al-Yahud*. Dar al-Shuruq.
- Rich, D. 2021. Why is the British left anti-Israel, and why does it matter? A. Lange, K. Mayerhofer, D. Porat, and L. H. Schiffman, eds. *Confronting antisemitism in modern media, the legal and political worlds*. De Gruyter, 323-330.
- Sattar, N. 1995. Al Ikhwan al Muslimin(Society of Muslim Brotherhood) aims and ideology, role and impact. *Pakistan Horizon* 48(2), 7-30.
- Schroeter, D. J. 2018. Islamic anti-Semitism in historical discourse. *The American Historical Review* 123(4), 1172-1189.
- Speer, A. 1971. *Inside the Third Reich*. Avon Books.
- Spoerl, J. S. 2014. Palestinians, Arabs, and the Holocaust. *Jewish Political Studies Review* 26(1/2), 14-47.
- Spoerl, J. S. 2020. Parallels between Nazi and Islamist anti-Semitism. *Jewish Political Studies Review* 31(1/2), 210-244.
- Tibi, B. 2015. From Sayyid Qutb to Hamas: The Middle East conflict and the Islamization of antisemitism. C. A. Small, ed. *Antisemitism in comparative perspective*. Institute for the Study of Global Antisemitism and Policy, 457-483.
- Working Class History. 2023. *Mujama al-Islamiya recognised by Israel*. 출처: <https://stories.workingclasshistory.com/article/11419/mujama-al-islamiya-recognised-by-israel> (검색일: 2024. 02. 05.).
- Zografos, M. 2021. Genocidal antisemitism: A core ideology of the Muslim Brotherhood. Institute for the Study of Global Antisemitism and Policy.

● 투고일: 2024.01.14. ● 심사일: 2024.02.05. ● 게재확정일: 2024.02.13.

| Abstract |

Hamas, an Incarnation of Anti-Semitism: Its Ideological Origins and Identity

Kim Thergill (Independent Scholar)

This study seeks to clarify the nature of Hamas's armed struggle and the Israel-Hamas war by examining the origins of anti-Semitism and the identity of Hamas. To do so, this study reviews the major works on anti-Semitism, Islamism, and Hamas's parent organization, Egypt's Muslim Brotherhood, to show that anti-Semitism did not originally exist in the Islamic tradition, and that anti-Semitism in the Islamic world was a product of the convergence of European anti-Semitism and the Islamism that emerged in the 20th century. By analyzing the 1988 Covenant and the 2017 General Principles and Policies, which contain Hamas's ideological identity, this study argues that Hamas is a terrorist organization that believes in Islamist anti-Semitism, and that Hamas's war against Israel is not just a territorial dispute but a religious war that can only end with the destruction of Israel and the world's Jews. This study has the significance of being the first in Korea to explore the ideological origins and identity of Hamas through the theme of anti-Semitism.

<Key words> Anti-Semitism, Islamism, Hamas, Muslim Brotherhood, Israel, Palestine, Israel-Hamas war